



부안해경 소속 경찰관 3명, 교통사고 환자 구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난 7일 부안군 진서면 한 도로에서 부안해경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로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고 응급조치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오전 12시 30분경에 부안해경 P-100정 소속 경찰관 3명(경사 유종욱, 순경 김호수, 순경 이재성)이 이날 퇴근길에 차량과 전동휠체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자신들이 해양경찰관임을 밝히고 상황을 신속히 전파했다. 순경 김호수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순경 이재성은 주변 차량 서행 유도 등 교통 통제를 실시했다. 환자는 잠시 후 의식이 돌아왔고 때마침 도착한 119 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되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김호수 순경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며 "환자분이 건강을 되찾아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소방서, 숙박시설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무주소방서는 지난 8일 관내 3층 이상 숙박시설 관계인 30여명을 대상으로 무주소방서 3층 대회의실 및 구조대 훈련장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사망7, 중상3, 경상9)에 따른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숙박시설 관계인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으로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 사용 및 관리 방법 △완강기 대피 실습 △피난·방화시설 유지 및 관리 방법 △화재 수신기 등 소방시설 관리유지 방법 △관계인 피난기구 등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부천 호텔 화재 관련 주요 소방정책 홍보 등이 포함됐다. /무주=전문성 기자



진안군민 화합 체육대회 백운면 선수단 발대식

진안군 백운면(면장 이보순)은 지난 8일 체육회 임원 및 출전 선수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진안군민 화합 체육대회 선수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일에 열린 백운면민의 날 체육대회의 기상을 이어 진안군민 화합 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발대식은 체육회장의 격려사와 종목별 선수단 소개 등으로 진행됐으며, 각 종목별 선수단이 모여 체육회에서 준비한 다과를 함께 나누며 훈련 일정을 조율했다. 이형재 백운면 체육회장은 "선수단 여러분은 백운면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서로 화합하는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승'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순 면장은 "이번 군민 화합 체육대회를 통하여 면민들이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 하셔서 부상 없이 재미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 하자"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시 시가동 주민자치회, 하반기 노래자랑 개최

정읍시 시가동 주민자치회(회장 임정훈)는 지난 7일 '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노래교실'에서 하반기 결산 노래자랑을 개최했다. 그간 노래교실에서 배웠던 노래를 기반으로 주민 1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고, 참가자와 주민들에게 푸짐한 상품도 증정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노래교실'은 조연비 가수가 진행을 맡아 4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무료로 운영했다. 노래교실은 매주 7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노래교실에 참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민 환경보건 분야 인식 수준 제고 '맞손'

전북 환경보건센터-전북대박물관, 환경문화 확산 협약

전북대학교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환경보건센터(센터장 손정우)와 전북대 박물관(관장 엄혁용)이 지역 환경보건문화 확산에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민들의 환경보건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오는 16일 전북대 박물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인식 개선을 위한 영화상영회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정우 센터장은 "환경 요인에 따른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건에 대한 지역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환경보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전북대학교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환경보건센터와 전북대 박물관이 지역 환경보건문화 확산에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환경보건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jehcsns>) 및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jeh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호남권 연합 IR 캠프서 9억 투자유치 '꽤거'

보드엠 등 6개사 투자 확정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이 '호남권 IR Matching Conference'를 통해 총 9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했으며, 34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초청된 20명의 투자전문가들이 IR 피칭 투자심사역으로 참여했다. 지난 8일 전북대에 따르면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엔피씨엔, 포에스코 퍼레이션, (주)스토리문 등 19개사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기업인 (주)나인피 인터스트리 등 11개사,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보육기업인 이드라이브(주) 등 4개사가 IR 피칭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총 6개사가 9억 원의 투자 확약을 체결했으며, 이들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북창업대전에서 추가 IR 피칭



기회를 얻게 된다. 국경수 단장은 "앞으로도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킹 및 후속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며 "후속 투자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 아영면민의 장 수상자 4명 선정... 12일 시상식

애향장 김맹수 · 효행장 이영선 · 공익봉사장 전명호 · 산업장 방극문씨

남원시 아영면(면장 이금연)은 오는 12일, 제27회 면민의 날을 맞아 면민의 장 수상자로 애향장 김맹수 씨, 효행장 이영선 씨, 공익봉사장 전명호 씨, 산업장 방극문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애향장의 김맹수 씨는 남원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이 인정됐으며, 효행장 이영선 씨는 20여 년간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여 몸소 효를 실천해 주민들의 칭송을 얻고 있다. 공익봉사장 전명호씨는 아영면 의용소방여대장 및 마을 부녀회장을 역임하면서 주민을 위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등 지역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장에 방극문 씨는 고령지역인 흥부골 아영면의 지리



적 특성에 맞는 작목으로 포도를 재배, 포도 불모지였던 아영면의 포도 재배 확산에 기여한 선구자로 아영면 농업발전회에 기여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시상은 오는 10월 12일 제27회 흥부골 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 교통약자 상대 교통사고예방 홍보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 장수파출소(소장 김병철)는 지난 8일 장수군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교통약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교통약자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센터를 찾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밝은 옷 착용, 도로를 횡단시 '사다-보다-걷다' 보행 3원칙 등 교통사고예방법을 세심히 설명했으며,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안이 있는 명함을 배포 예방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과관호 기자



다른오름, 지역 외식업체에 전통주 공급 체결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다른오름 농업회사법인인 전주시 외식업체인 한라와 제주 감귤을 이용한 무첨가 청주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라는 토종담을 부위별로 판매하는 외식업체로, 이번 계약에 R&D 협력, 사업 마케팅, 판매, 공급에 대한 협력이 포함됐다. 특히 전주대학교 농식품경영학과와의 창업 및 취업 교류까지 연계,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양사 간의 전략적 제휴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른오름은 2022년 전주대학교 농식품경영학과 김지음 교수의 실험실창업기업으로 출발했다. 이 회사는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전통주와 누룩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교원 창업기업이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인 IWSC 2024(International Wine & Spirit Competition)에서 자사 제품 '하루주'로 동메달(Bronze)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김경식 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지역 대학의 기술력과 지역 기업의 사업 역량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감귤을 이용한 무첨가 전통주의 가치와 맞춤형 양조에 대한 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비즈니스와 연계해 유망한 기술혁신벤처(자회사)를 발굴·육성해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산내면 남녀의용소방대, 산내면에 라면 전달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7일, 산내면 남녀의용소방대(대장:이춘식, 신경희)가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40박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소방대원 36명의 정성을 모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실천한 것으로, 남녀의용소방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춘식 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이날 행사를 함께한 전기정 인월119안전센터장은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와 함께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남원 노암동에 생필품 전달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활용품 전달해 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여름철 지리산 국립공원에 방문한 캠핑객들이 남기고 간 일회용품들을 수거, 탄소중립 포인트로 환산해 이웃들을 위한 물품을 구매했다면서 환경을 위한 탄소중립 캠페인에 많이 참여하길 당부했으며, 기탁된 물품은 화장지, 세탁제, 두유 등 생활용품으로 1일 1가지 방문을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차미화 노암동장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탁이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금구면 주민자치위원회 고구마 수확 행사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홍영)가 지난 8일 주민자치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한 고구마를 수확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금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금구면장을 비롯한 직원 등 30여 명이 모여 수확 작업을 진행했으며, 수확한 고구마는 박스 포장 후 관내 47개 마을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홍영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고구마 수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기쁘다"며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